

## 『전경』에 나타난 기상 현상을 통해 본 증산의 자연관

김진영\*

### ■ 국문요약

많은 종교에서 기상 현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제로 사용된다. 『전경』 역시 기상 현상은 증산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신명조화가 실현되는 징조 또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오로지 천수답에 의존해 호구지책을 세울 수밖에 없던 시절, 증산이 백성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상 재해를 단비와 맑은 날씨로 바꾸는 것과 같은 행위는 그에게 기본적인 구세제민(救世濟民)의 덕목과도 같았다. 증산이 주요 공사를 행할 때 기상의 상태가 급속도로 바뀌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는데, 이는 변화를 추동하는 에너지가 기상 현상을 통해 생성된다거나 매개된다고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증산이 어떤 방식으로 기상 현상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의 자연관을 설명하고, 검증하는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경에 나타난 기상 현상을 속성을 토대로, 권능과 이적, 신명과의 매개, 공사 전후, 호생지덕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증산은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연대와 상호작용에서 근원적인 문제 해소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E-mail: staci21@naver.com

책을 제시한다. 선천의 제 문제의 원인이 된 ‘원(冤)’을 풀기 위해서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하며, 근원적인 원의 해소와 만물을 잘 살게 하는 상생의 도(道)만이 자연재해,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증산, 기상 현상, 대순진리, 『전경』, 기후위기, 자연관

- I. 머리말
- II. 『전경』에 묘사된 기상 현상 분류
- III. 『전경』의 기상 현상 분석
- IV. 맺음말

## I. 머리말

매일 아침 접하는 기상캐스터의 일기 예보는 과학 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안방까지 전달되는 정보로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장 수월하게 충족해준다. 비단 일기 예보뿐이라. 나약한 우리 인간은 과학이라는 객관적 수단뿐만 아니라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신과 가족의 안위나 불확실한 미래, 나아가 국운까지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영매를 통해 예언되는 미래의 모습은 천차만별이거나 바넘효과(Barnum Effect)<sup>1)</sup>에서 보듯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으나 대체로 개개인에 대한 예언은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단으로 유포되는 기상 예측은 적어도 그 순간 TV 앞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미래’를 얘기한다는 점에서 훨씬 영향력이 크다 할 것이다. 물론 초월적 존재에 의지한 예언과 최첨단 과학을 통한 기상 예측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오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초자연적 힘에 대한 경외심을 이끌어 내며,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본

1)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성격 특성을 자신에게만 특별히 맞추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

질적인 유사성이 있다.

많은 종교와 사상에서 기상 현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제로 사용된다. 기독교 성서에는 창세기 1장<sup>2)</sup>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과정과 요한계시록<sup>3)</sup>의 종말에 닥칠 재앙적인 기상 이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상 현상이 무수히 묘사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팔풍(八風)<sup>4)</sup>’이라 하여 번뇌를 일으키는 여덟 가지 외부 작용을 ‘바람’이라는, 매우 동태적인 기상 현상에 비유한다. 『아미타경(阿彌陀經)』에서 극락정토는 매일 밤낮 만다라꽃비가 세 차례씩 내리며 비와 눈이 없고 해와 달이 없지만 항상 밝고 밤낮이 없고, 차고 더운 것이 없다고 묘사된다. 지극히 안락하고 괴로움이 없으며 자유로운 세상의 실현에 기상 현상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회오리바람과 소낙비와 같은 기상 현상<sup>5)</sup>을 빗대어 천지 대자연 앞에 겸손할 것을 가르친다.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역시 자연이 인격과 가치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기상 현상이 자연 체계의 일부로서 사람들에게 경이와 궁금증, 겸손의 감정을 유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경』에서 기상 현상은 증산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신명조화가 실현되는 징조 또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오로지 천수답에 의존해 호구지책을 세울 수밖에 없던 시절, 증산이 백성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상 재해를 단비와 맑은 날

2) 창세기 1:3-5,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3) 요한계시록 16:21, “무개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요한계시록 20:9,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4) 여덟 가지 바람이란 칭찬, 탓, 고통, 즐거움, 이익, 손실, 비방, 호평이다.

5) 『도덕경』 제23장, “希言自然(희언자연) 故飄風不終朝(고표풍불종조) 驟雨不終日(취우불종일) 孰爲此者(숙위차자) 天地(천지): 천지다. 天地尙不能久(천지상불능구) 而況於人乎(이황어인호). 말이 적은 것은 자연스럽다. 그렇기에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갑작스런 비는 종일 내리지 않는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하늘과 땅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과 땅마저 변치 않을 수 없으니, 하물며 사람이야.”, 노자, 『도덕경: 노자사상』 (서울: 알바투스, 2017) 참조.

씨로 바꾸는 것과 같은 행위는 그에게 기본적인 구세제민(救世濟民)의 덕목과도 같았다. 또한, 증산이 주요 공사를 행할 때 기상의 상태가 급속도로 바뀌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는데, 이는 변화를 추동하는 에너지가 기상 현상을 통해 생성된다거나 매개된다고도 유추해 볼 수 있다.

21세기의 기상 현상은 여러 종교 경전의 관조적 묘사나 관념을 넘어 실질적인 대재앙이 된 지 오래이다. 지구는 인류세의 시작인 농업 혁명을 거치며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농도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18세기 산업혁명은 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의 배출을 전혀 없는 수준으로 증폭시켰다. 이로 인한 결과는 매년 혹서, 혹한, 가뭄, 대기의 강으로 인한 대홍수, 슈퍼허리케인, 미세먼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재산 손실 및 인명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빙하코어(ice core)까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의 상승뿐만 아니라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고대 바이러스의 출현까지 예견되는 정도이다. 전지구적인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주로 화석연료의 사용과 토지이용의 변화에 기인하는 한편, 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증가는 농업에 의한 배출이 주된 원인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인류의 생존에 필요했던 활동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인류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암울한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이 연구에서는 증산이 어떤 방식으로 기상 현상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의 자연관을 설명하고, 점증하는 기상이변(이하 기후위기)<sup>6)</sup>에 대처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려고 한다.

6) 기상은 단기간의 대기 현상으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온, 바람, 비 등의 대기 상태를 가리키며 기후는 수십 년 동안의 기상 상황으로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이다. 기후는 위도, 바람으로부터의 거리, 식물 또는 다른 지리적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다양하며, 또한 계절 등 시간에 따라서도 다양하다. 『국가기후위기정보포털』, 「기후위기 정의」 ([https://kacc.kei.re.kr/portal/climateChange/climatechange\\_list.do](https://kacc.kei.re.kr/portal/climateChange/climatechange_list.do), 2022. 2. 19. 접속) 참조. 이 연구에서는 기상, 기후 관련 용어는 재앙적인 기상의 변화의 경우 기상이변을, 좀 더 포괄적이며 장기간 나타나는 기상이변의 경우 '기후위기'를 사용하였다. 『전경』의 기상 현상 분류표는 기온의 변화 및 눈, 비, 바람, 서리, 천둥, 번개, 구름, 우박, 안개 등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기 현상으로 국한하였다.

## II. 『전경』에 나타난 기상 현상 분류

부지런한 농부가 한겨울에 이듬해 봄, 밭에 뿌릴 씨앗을 준비하고 농기구를 손질해 두는 이유는 그 겨울이 가고 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오고, 봄이 떠난 대지는 여름을 맞이하며, 그리고 또다시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이 찾아온다는 ‘자연의 이치’를 체화했기 때문 이리라. 계절의 순환과 이에 따르는 기상 현상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의 ‘항시성(恒時性)’을 담고 있다. 이것이 곧 우주의 순리이며, 무위 이화(無爲而化)의 도(道)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대순진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종교에서 자강불식(自強不息)하는 자연의 법칙을 깨달음으로써 진리에 다가서고 중생을 계도하기에 기상 현상이 신의 권능과 계시를 전하는 전범(典範)처럼 쓰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전경』에도 놀라우리만치 무수한 사례에서 자연 현상이 언급되는데, 이번 장에서는 증산의 자연관을 연구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전경』에 기술되어 있는 자연(기상) 현상을 속성에 따라 몇 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눈, 비, 바람, 뇌성, 벽력, 우박, 서리, 구름, 안개 등의 기상 현상, 해, 달, 별의 운행 등의 일부 천문 현상의 급격한 변화가 현시적으로 나타났을 경우로 국한하였다. 다시 말해, 행록 4장 42절, 교운 1장 35절, 권지 1장 6절이나 예시 81절에 묘사되듯이<sup>7)</sup> 증산이 기상 현상을 빗대어 종도들을 가르치거나 행록 4장 36절, 교운 1장 24절, 교운 2장 25절처럼 일상적인 일기(日氣)에 관한 묘사<sup>8)</sup>는 제외하였다(<표 1> 참조).

7) 『전경』, 행록 4장 42절, “... 이른 봄에 쉬지 않고... 자기 눈에 수원지의 물이 잘 들 어오도록... 사람들이 보고 공연한 노력이라고 비소하더니... 날이 무척 가물어 그 들판이 적지가 되었으나...”, 교운 1장 35절, “... 천지의 조화로 풍우를 일으키려 면 무한한 공력이 드니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이르셨도 다.”, 권지 1장 6절, “... 봄 기후가 순조로워 보리농사가 잘 되어 흉년의 징조가 보이는... 신명 공사에서 작정된 것인데 어찌 결실하기도 전에 농작을 예기할 수 있으 리오... 종도들의 성급함을 탓하시니라...”, 예시 81절, “... 세상에 수·화·풍(水 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표 1〉 『전경』에 나타난 기상 현상의 분류

주요 속성	해당 목차	주요 내용
증산의 권능 및 이적 (異跡)	행록 1장 29절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 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
	행록 3장 25절	…눈비가 내리고 몹시 추워져 노영(露營)에 모였던 민중은 내리는 눈비와 추위에 견디지 못해 해산하고….
	행록 1장 31절	…그 날 밤부터 한 달 동안 칠성을 다 숨기시니 세상에서 칠성을 발견하는 자가 없었도다.
	행록 1장 36절	…오직 계시는 그 지붕에 한 점의 눈도 없을 뿐 아니라 맑은 기운이 하늘에 뻗쳐 구름이 가리지 못하고 푸른 하늘에까지…상제께서 머무시는 곳에 구름이 가리지 못하는도다.
	행록 2장 11절	…순검들을 보내오니 상제께서는 순검이 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샷갓을 쓰고 길가에 나가서 안개를 짓고 앉아 계시도 순검들이 몰라보고 지나가곤 하였도다.
	행록 3장 30절	…「그 재를 앞 내에 버리고 하늘을 쳐다보라,」 하시니 갑철은 이상한 기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치는 것을 보았도다.
	행록 3장 36절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고 하셨도다. 그 며느리는 벽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 도다.
	행록 4장 35절	…종도들이 우러러보니 이상한 서운이 노를 저어 하늘을 건너가는 모양을 이루었도다.
	행록 4장 51절	…하늘을 향하여 「생선의 기운이 발하는도다,」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도다. 가물치 모양의 구름이 동쪽으로 움직였도다.
	행록 5장 35절	…갑자기 몽계구름이 사망을 덮더니 뇌성벽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화천하신 지붕으로부터 서기가 구천(九天)에 통하는도다….
	공사 1장 4절	…쏟아지는 큰 비를 견히게 하시려면 종도들에게 명하여 화로에 불덩이를 두르게도 하고…풍우·상설·뇌전을 일으키는 천계대권을 행하실 때나 그 외에서도 일정한 법이 없었도다.
	공사 1장 33절	…이날 밤에 상제께서 눈비가 내리는 것을 내다보시면서 공우에게 「너의 한 번 그릇된 생각으로써 천기가 한결갈지 못하다,」고 책망하셨도다.
	교운 1장 21절	…「내가 머무는 곳을 천지가 다 알아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갑자기 천둥이 치는지라

- 8) 같은 책, 교운 1장 24절, “…아내는 무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여 괴로워하면서 혼자 불평을 하던 차에…”, 행록 4장 36절, “정미년 화창한 봄이 되었도다…”, 교운 2장 25절, “…그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종이에 글을 쓰셔서…그 종이 심한 바람에도 날리지 않았도다.”

교운 1장 25절	…잡자기 우레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 집에 범하려 하기에 상제께서 번개와 우레가 일어나는 쪽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곧 멈추는지라.
교운 1장 53절	…상제께서 윤경을 시켜 구름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시니 그가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하늘이 맑고 오직 상제께서 계신 지붕 위에 돈뎀만 한 구름 한 점이…」
교법 3장 25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게 치는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뒷날 출세할 때는 어찌 이럴까 뿐이리오. 뇌성 벽력이 천지를 진동하리라.…」
권지 1장 2절	상제께서 가시는 여름의 폭양 길은 언제나 구름이 양산과 같이 태양을 가려 그늘이 지는도다.
권지 1장 3절	…공을 들이는 동안에 일이 그릇되어 버리면 어찌 하리오, 말씀하시고 곧 동남풍을 일으켜 보였도다.
권지 1장 9절	…치도령을 내리시면 여름에는 나무에 내린 이슬을 바람이 불어 떨어뜨리고 겨울에는 진흙 길이 얼어붙기도 하고 쌓인 눈이 녹기도 하였도다.
권지 1장 22절	…어느날 풍·운·우·로·상·설·뇌·전(風雲雨露霜雪雷電)을 이루기는 쉬우나 오직 눈이 내린 뒤에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린 뒤에 서리를 오게 하기는 ….
권지 1장 23절	…제비봉(帝妃峰)에서 번개가 일어나 수리개봉(水利開峰)에 떨어지고 또 수리개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제비봉에 떨어지니라….
권지 1장 27절	…담배를 물에 축여서 세 대를 연달아 피우시니 떠오르던 해가 산머리를 쫓지 못하는지라.
권지 1장 31절	…종도들과 함께 나누어 잡수시는데 눈이 멈추고 일기가 화창하여 쌓인 눈도 경각에 다 녹고 길도 터어….
권지 2장 2절	…그가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서 「검은 구름이 가득히 하늘을 덮어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창문을 열고 동천을 향하여 헛기침을 하시니 구름이 흩어지고 별이 나타나는도다.
권지 2장 6절	…큰 비가 몰려오기에 길 복판에 흙을 파서 침을 뱉고 흙을 덮으시는도다. 비가 그 자리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더니….
권지 2장 7절	…비를 피하려고 하나 상제께서…몰려오는 구름 쪽을 향하여 담배 연기를 뿜으셨도다…천천히 걸어 학산암에 이르시니 곧 비가 역세게 내리기 시작하였도다.
권지 2장 9절	천문을 보시려면 대체로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성수를 하나씩 나타나게 하여, 종도로 하여금 살피게 하기도 하였도다.
권지 2장 11절	…담배대를 들어 태양을 향하여 돌리시면 구름이 해를 가리기도 하고 걷히기도 하여 구름을 자유자재로 좌우하였도다.
권지 2장 12절	…가라사대 「내가 어제 구름 속에서 내려다보니 네가 손을 모으고 있었으니 무슨 연고이냐고 물으시므로….



	권지 2장 28절	… 새 옷으로 갈아입고 문밖에 나가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 속에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앉아….
	권지 2장 30절	… 「저 하늘을 보라.」 하시니 구름도 같은 기운이 종도들이 놓고 있는 모양을 짓고 중천에 떠 있었다.
	권지 2장 32절	… 혼인날에 앞서 여러 친지들이 여러 가지로 부조하는 것을 보시고 상제께서는 결혼날의 날씨를 부조하셨도다….
	권지 2장 33절	… 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구름 기둥이 동구(洞口) 좌우에 깃대와 같이 높이 뻗쳐서….
	예시 2절	… 그 여인의 몸을 하늘의 불덩어리로 덮고 이상한 향기와 맑은 기운이 가득히….
	예시 40절	… 북쪽을 향해 휘파람을 부시니 별안간 방장산으로부터 한 줄기의 안개가 일더니 사방으로 퍼져 문턱과 같이 되었다도다….
	예시 68절	… 이때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바람이 크게 일어도 솟불이 요동하지 않았다도다. 상제께서 찬명의 서북 하늘의 구름 사이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동남 하늘에 구름이 흩어져 별이 많이 반짝인다는 복명을 들으시고….
정산의 권능 및 이적	교운 2장 1절	여흥 민씨(驪興閔氏)가 어느 날 하늘로부터 불빛이 밝게 자기에게 비치더니 그 후 잉태하여 한 아기를 낳으니라….
	교운 2장 22절	… 구릿골에서 통사동 재실로 상제의 성골을 모시고 돌아오니라. 이때 갑자기 뇌성이 일고 번개가 번쩍였다.
	교운 2장 25절	도주께서 계해년 정월에 함안 회문리를 순회하고… 둔도수라 하시고 석 달 동안 행하셨는데 그 중이 심한 바람에도 날리지 않았다.
	교운 2장 47절	… 시종자에게 그 동안 모아놓은 글씨 종이를 태우고 그 재를 시냇물에 띄우라고 이르시므로 시종자가 그대로 하니 시냇물에 무지개가 서는도다.
	교운 2장 51절	… 거세던 동남풍이 누그러지고 서풍이 일더니 불이 꺼지는도다.
	교운 2장 67절	화천을 고하듯 뇌성이 일고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듯 빗방울이 뿌리더니 무지개가 도장을 덮으셨도다.
공사 전후 현상	행록 1장 29절	… 그때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 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
	행록 3장 63절	이날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냉혹하였도다. 「이것은 대공사를 체결한 까닭이노라.」 하시니라….
	행록 5장 15절	… 서편 하늘에 한 점의 구름이 있는 것을 아뢰니 다시 명하시기에 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들어와서 한 점의 구름이 온 하늘을 덮은 것을 여쭙었더니….
	공사 1장 18절	… 상제께서 「번개 치는 곳에 던지라.」고 이르시니 그는 다시 갑판에 올라가니 말씀이 계신 대로 한 쪽에서 번개가 치는지라….

공사 2장 25절	... 다시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이 말세를 당하여 어찌 전쟁이 없으리오. 뒷날 대전쟁이 일어나면 각기 재조를 자랑하리니 재조가 월등한 나라가 상등국이 되리라.」 이 공사가 끝나자 천고성이 사방에서 일어났도다.
공사 2장 27절	...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도다.
공사 3장 1절	... 상제께 돌아가는 길에 돌연히 검은 구름이 일더니 집에 이르자 폭우가 쏟아지고 뇌전이 크게 치는지라. ... 상제께서 가라사대 「뒷날 변산 같은 큰 불덩이로 이 세계가 타 버릴까 하여 그 불을 문었노라」 하셨도다.
공사 3장 21절	... 목전의 일만을 쉽게 알고 심량 없이 하다가 말래지사(未來之事)가 갑자기 않으면 그 아니 내 한(恨)인가를 읽으시니 뇌성이 대발하며 천지가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화약내가 코를 찌르는도다...
공사 3장 27절	... 햇무리가 서다가 한쪽이 터지더니 남은 종이쪽지가 타는 데 따라 완전히 서는도다...
공사 3장 29절	... 매화(埋火) 공사를 행하시고 四十九일간 동남풍을 불게 하실 때 四十八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공사 3장 38절	... 상제께서 모든 중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별안간 천둥 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교운 1장 8절	... 모든 천지공사에 신명을 모으고 흠어지게 하는 일과 영을 듣는 일에 무리들을 참관케 하고 또 풍우를 짓게도 하시면서...
교운 1장 23절	...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레와 번개를 발하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없거늘 어찌 두려워하느뇨. ...」
교운 1장 38절	... 중도들에게 「하늘에 별이 몇이나 나타났는가 보라」 하셨도다. 갑질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
권지 1장 7절	... 신축년부터 내가 일체의 천지공사를 맡았으니 금년에는 농작물이 잘 되게 하리라」고 이르시니라. 이해에 비가 적절히 내리고 햇별이 쏘이더니...
권지 1장 16절	... 「서양으로부터 우사를 불러서 비를 주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술상을 차리고 ...
권지 1장 25절	... 추운 겨울 어느 날 창조의 집에 오셔서 벽력포(霹靂票)를 땅에 묻으시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천지를 진동하니라...
예시 24절	... 四十九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불어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공사를 행하셨도다.
신명과의 매개	행록 3장 61절 ... 그믐날 밤에 우레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이것은 서양에서 신명이 넘어옴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공사 2장 8절 ... 묵수에게 주고 꿇어앉은 그대로 불사르게 하시니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는지라...

	교운 2장 34절	… 두주께서 부안 변산에 가셔서 육정 신장을 불러 응기케 하시니 뇌성벽력이 크게 일고 산천이 진동하는 듯 하였도다.
	제생 40절	… 만수(萬修)를 세 번 부르시니 맑은 하늘에 문득 지미 같은 것이 가득히 끼어 지척을 분별키 어려워….
호생지덕 (好生之德)	행록 1장 26절	… 두 사람이 먼저 참형되고 덕안의 차례가 되었을 참나에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천둥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비가 억수 같이 쏟아지는지라….
	행록 2장 19절	… 그 지팡이를 빼앗아 꺾어 버리시니 그는 할 수 없이 서있게 되었도다. 이후부터 그는 요통이 쾌차하였느니라… 문밖에 나가서 서쪽 하늘에 붉은 구름이 떠 있나 보라고 하시니….
	행록 2장 21절	… 가뭄 때문에 뜨물이 생겨 채소가 전멸케 되었는지라. 상제께서 그것을 보시고… 곧 비를 내리게 하셨도다….
	행록 4장 15절	… 갑자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하더니 삼시간에 큰 비가 내리니 말라죽던 보리가 다시 생기를 얻게 되었도다.
	행록 4장 27절	… 가뭄이 계속되어 곡식이 타 죽게 됨에… 이때 갑자기 뇌성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행록 4장 31절	… 들으시고 「네가 비를 빌러 왔도다. 우사(雨師)를 너에게 불러 보내리니 곧 돌아가되 도중에서 비가 내려도 몸을 피하지 말라」고 이르시니라….
	공사 1장 24절	… 수일간 만경에 머무시면서 비를 흡족하게 내리게 하시니 비로소 인심이 돌아가 농사에 종사하는 자가 날로 늘어나더라….
	공사 1장 28절	… 이 물줄기는 대한불갈(大旱不渴)이라. 능히 하늘을 거꾸리라. 강 태공(姜太公)은 제(齊) 나라 한 고을에 흉년을 없앴다고 하나 나는 전북(全北) 칠읍(七邑)에 흉년을 없애리라 하셨도다.
	공사 3장 38절	… 상제께서 모든 종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별안간 천둥 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권지 1장 13절	… 이때 갑자기 큰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남풍이 불더니 이튿날 땅이 굳어지는도다….
	권지 1장 25절	… 쌀쌀하던 날씨가 별안간 풀리면서 땅의 눈이 녹아서…
	권지 1장 32절	…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우박이 올 터이니 장독 덮개를 새끼로 잘 엮어 놓아라.」 하시니….
권지 1장 35절	… 서양으로부터 우사를 불러와서 만인의 갈망을 풀어주리라. 감칠이 말씀대로 옷을 벗고 동이 앞에 합장하여 서니 문득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큰 비가 내리니라….	
권지 1장 36절	… 종도들이 풍·우·한·서(風雨寒暑)에 따라 불편을 아뢰릴 때마다 천기를 돌려서… 하루는 상제께서 「너희들이 이후로는 추위도 춥다 하지 말고 더위도 덥다 하지 말고 비나 눈이 내려도 불평하지 말라…」	

권지 2장 15절	… 이 불을 끄지 않으면 동리가 위태로우리라고 말씀하시고, 크게 바람을 일으켜 불을 끄시니라….
권지 2장 16절	… 상제께서 공홍히 여겨 「내가 수재를 면케 하리니 근심 걱정하지 말지어다」고 이르시니 내리던 비가 개는지라….
권지 2장 17절	… 이르시기를 「중복인 오늘에 뇌성이 울리지 않으면 농작물에 충재의 해가 있으리라.」 날이 저물도록 우렛소리가 없기에 … 하늘을 향하여 꾸짖는 듯이 소리를 치시니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도다.
권지 2장 18절	… 공우에게 「하늘에 쯤성이 나타났는가 보라」 하시니 공우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나타나 있음을 아뢰니 상제께서 배고 계시던 목침으로 마룻장을 치시며 「쯤성아, 어찌 무고히 사람을 해하느냐」고 꾸짖으셨도다….
권지 2장 19절	가뭇이 심할 때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청수둥이에 소변을 조금 타서 오곡을 잘 되게 하시고 충재가 있을 때에 청수둥이에 고춧가루를 풀어 넣고 충재를 없앴도다.
제생 18절	… 조금 지나서 비가 내리니 그자는 할 수 없이 빗을 탕감하고 돌아가니라. 그 비는 상제께서 내리게 하신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었도다.
예시 53절	… 쪽지마다 글을 써서 한쪽만을 불사르고 나머지 열 한쪽을 치복으로 하여금 불사르게 하셨도다. 이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뭇에 마르던 보리가 생기를….

### Ⅲ. 『전경』의 기상 현상 분석

<표 1>의 분류에서, 기상의 속성은 크게 다섯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첫째와 둘째 항목은 각각 증산과 정산의 권능이나 초자연적 이적을 보여줄 때의 기상 현상에 대한 묘사이다. 사실 나머지 범주의 모든 일화들도 의심의 여지없이 증산의 권능과 이적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사 전후 또는 호생지덕의 행위중 나타나는 급격한 기상 변화 역시 증산의 권능을 보여주기엔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이 연구에서는 내용중 ‘공사’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확인되거나 구체적으로 지칭되는 경우, 세 번째 항목인 ‘공사 전후’에 배치하여 분류하였다. 네 번째는 증산이 신명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 신명과 인간사이를 매개하는 현상에

서 기상의 변화가 목도된다. 마지막으로 증산이 병자를 고치거나 어려움에 처해 고통을 호소하는 백성을 구하고자 천기를 돌린 경우는 다섯 번째인 ‘호생지덕’ 항목에 포함하였다.

인간은 그동안 눈부신 과학적 성과를 통해 과거 ‘신의 기적’으로 여겼던 많은 자연 현상을 규명하였으나 역설적으로 무엇이 이적인지 규정하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우리의 지식이 아직 부분적이고,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며, 오늘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내일은 흔한 일이 될 수도 있기에 이적을 적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대를 뛰어넘는 사건이나 행복한 우연의 결과나 상황,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즉 과학의 관점에서 불가능하다고 간주되는 것 등이 기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sup>9)</sup>

이적의 존재나 이에 대한 믿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계몽주의 이후의 합리적 법칙의 세계에서 자란 서구 유물론과 그 옹호자들의 영향도 한몫을 한다. 샘 해리스(Sam Harris)나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미치오 카쿠(Michio Kaku)와 같은 명망있는 대중과학자들은 ‘신은 없다’고 외치며 지상과 TV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에 출연하며 대중으로부터 종교로 인한 미망에서 깨어날 것을 설교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종교 안팎에 신에 대한 거센 도전은 신의 권능의 표상과 다름없는 이적에 대한 인간의 믿음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게 될까? 종교사회학적 측면에서 실시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미국의 프린스턴 서베이 연구소(Princeton Survey Research Center)와 퓨연구센터(Pew Research Center)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미국인 84퍼센트가 이적은 ‘신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응답<sup>10)</sup>했으며 CBS뉴스가 1999년 조사한 설문에서 성인 3명중 한 명은 직접 신의 이적을 경험하거나 목도했다고 답했다.<sup>11)</sup>

9) Fiona Bowie, “Miracle in Traditional Religions” in Graham Twelftree,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Mirac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123-124.

10) 『LA Times』, 「Most Believe in Miracles, Poll Finds」 (<https://www.latimes.com/m/archives/la-xpm-2000-may-06-me-27250-story.html>, 2023. 4. 25. 접속)

흠(Hume)이 주장하듯이, 종교적 메시지의 진정성이 이적을 통해 보여진다고 전제하면,<sup>12)</sup> 상당수의 미국인은 매일매일 미디어를 뒤덮는 과학적 발견의 홍수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적을 신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위상은 축소되고 있지만 87퍼센트에 달하는 미국인이 신을 믿는다고 답변한 갤럽의 또 다른 설문조사<sup>13)</sup>는 흥미롭게도 두 개의 조사가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행해진 것을 감안한다해도 미국인은 여전히 영적, 초자연적 힘에 관심이 많으며, 이적을 인간사에 대한 신성의 개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보자면, 유사한 내용의 갤럽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초자연적 현상이나 이적에 대해 미국인보다는 조금 낮은 57퍼센트가 믿는다고 응답했지만, 종교를 믿는다고 답변한 사람들에서 기적의 존재를 인정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80퍼센트 내외를 유지<sup>14)</sup>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인과 비교해도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신앙심의 상호관련성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비종교인, 무종교인의 이적을 믿는 비율은 45퍼센트(미국인은 19퍼센트)로 나타나 그

11) 『CBS News』, 「Poll: Do You Believe In Miracles」 (<https://www.cbsnews.com/news/poll-do-you-believe-in-miracles>, 2023. 4. 25. 접속)

12) David Hume,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pp.80-100. (<https://socialsciences.mcmaster.ca/econ/ugcm/3ll3/hume/enquiry.pdf>, 2023. 4. 20. 접속)

13) 갤럽은 1937년부터 꾸준히 종교인 현황을 조사해왔는데, 당시 73퍼센트의 미국인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반면 2021년 현재는 단 48퍼센트만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LEONARD PITTS JR, 「Pitts: The church may be shrinking, but belief in God is not」, 『The Mercury News』, (<https://www.mercurynews.com/2021/04/03/pitts-the-church-may-be-shrinking-but-belief-in-god-is-not>, 2022. 1. 10. 접속) 참조. 우리나라도 2021년 유사한 조사에서 40퍼센트의 응답자가 종교를 믿는다고 답변했다. 이 수치는 2004년 54퍼센트, 2014년 50퍼센트와 비교해서 급속도로 종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2030연령대의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14) 『한국 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 종교에 대한 인식」,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9>, 2023. 4. 20. 접속)

름에 따라 큰 간극을 보였다. 역시 두 조사간 문화적, 시간적 격차를 감안해도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미국인보다 이적을 믿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증산의 신위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德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sup>15)</sup>와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이라는 명칭은 증산이 권능과 조화로써 우주의 변화를 주관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증산은 천지도수를 새롭게 짚으로써 후천선경의 운로를 여는데,<sup>16)</sup> 이 과정에서 날씨의 극적 변화와 같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이적을 통해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다. 전근대적 사회에서, 초자연적 기상 현상을 통한 이적이야말로 민중의 신뢰를 얻고 가르침을 전하는 데 백마디 말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범주는 각각 증산이 공사를 행하기 전후의 기상 변화와 공사를 이행할 때 참여하는 신명의 이동 및 존재의 양태를 나타낸다. 대순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천지공사는 증산이 천지의 주관자로서 천지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를 몸소 해결하기 위해 인세에 내려와 행한 대역사를 지칭한다.<sup>17)</sup> 대순진리에서는 선천이 상극의 원리로 인해 원이 맺히고 쌓여 천지인 삼계가 불통하게 됨으로써 참혹한 재화가 발생하며, 그 결과, 세계가 진멸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믿는다. 이러한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증산은 해원을 위주로 천지공사를 행한 것이다.

기상 현상은 대순진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및 사상계와 신화에서 나타난다. 기독교 성서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기상 현상은 대부분 타락에 빠진 인간을 벌주거나 종말의 징조를 보일 때처럼 절대자의

15) 증산의 신격에서 뇌(雷)는 고대사회에서부터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많은 민족 전통에서 뇌신 신앙이 성행했다. 뇌신은 자연신 중에 최고신으로 자리 잡았다. 박마리아,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신앙체계에 관한 비교」, 『신종교연구』 24 (2011), pp.137-138. 참조.

16) 『대순종교문화연구』, 「신앙의 대상」 ([http://gyomubu.or.kr/bbs/content.php?co\\_id=002\\_03](http://gyomubu.or.kr/bbs/content.php?co_id=002_03), 2022. 1. 18. 접속)

17) 이경원, 「대순종지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6 (1998), p.763.

권위와 정벌의 상징이다.<sup>18)19)</sup> 그리스신화의 최고신인 제우스의 무기는 천둥과 번개이며, 인도 베딕신화의 인드라(Indra)는 천둥 번개로 이수라를 제압한다. 한편 최근 대중문화콘텐츠의 주인공으로 익숙한 북유럽신화의 ‘천둥의 신’ 토르(Thor)는 아버지 오딘(Odin)으로부터 물려받은 мол니르(Mjölmir)라는 이름의 망치로 천둥 번개를 만들어내 천계를 어지럽히려는 적들을 물리친다. 이처럼 여러 문화권에서 기상 현상은 신의 존재와 전지전능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징벌적, 파괴적 속성을 동반한다.

반면, 증산은 천지공사를 통해 어긋난 삼계를 바로잡고 후천세상을 열기 위한 창조적 도구로써도 기상 현상을 빈번히 활용한다. 그는 9년간의 천지공사의 대장정을 모두 마친 후 새로운 후천세상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며, “천지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명”<sup>20)</sup>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즉, 증산이 행한 수많은 공사의 증표이자 매개로서 기상의 양태가 필연적으로 변화하며 공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공사 전후 기상 변화를 보면, 해원공사의 한 과정으로서 고부 화액은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서양의 신명이 넘어오고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를 동반한다. 임진왜란 때 장렬히 싸우다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의 해원공사에서는 한 점의 구름이 온 하늘을 덮

18) 구약 시편 18장 10절부터 여호와가 ‘다윗’의 원수들에게 진노하며 벌하는 장면에 나타나는 기상 현상이 묘사되어 있다. Chandima Gomes and Ashen Gomes, “Lightning: Gods and Sciences,”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ghtning Protection (ICLP), Shanghai, China (2014), p.1793.

19) 에스겔 38:22, “내가 … 심판할 것이다. 내가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흥을 그와 그의 군대 위에,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많은 나라들 위에 쏟아부을 것이다.” 이외 요한 계시록 8장 5절부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 11장 19절까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종말에 닥치는 기상 현상의 급변을 비롯한 재앙적 상황 묘사 참조.

20) 『전경』, 공사 3장 38절, “… 너희들이 참관하고 확증을 마음에 굳게 새겨 두라. 천지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명하리라.”



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한다. 증산이 동곡에 머물다가 여러 가지 공사를 보기 위해 종도들과 서울로 떠나는 도중에는 풍랑, 바람, 번개와 같은 기상의 급속한 변화가 동반되며, 매화공사를 마친 후에 구름이 일고,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친다거나 기차 기운을 돌리는 공사에서는 햇무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전경』에서 햇무리, 무지개, 오색 채운 등은 증산과 조정산의 신성성과 공사의 성취를 알리는 상서로운 현상으로 풀이된다. 증산이 벽력표를 땅에 묻은 행위 이후 화답하듯 번개와 천둥이 치기도 하며, 천지공사를 시작한 신축년에는 ‘농작물이 잘 되게 하겠다’<sup>21)</sup>는 선언만으로 적절한 강수와 일조(日照)로써 풍년을 들게 한다. 이를 헤겔의 노동개념을 빌어 설명하자면, 증산은 절대자로서 이른바 ‘노동’을 통해 천지공사를 구현한다.<sup>22)</sup> 즉, 증산은 공사를 몸소 행하고, 모든 천지공사에 신명을 모으거나 해산하기도 하고, 우사(雨師), 좀성(蟲星)이나 만수(萬脩)와 같이 특정 영역을 다스리는 신명을 직접 불러 공사를 집행하기도 한다. 증산은 또 사람들에게 직접 기운을 불어 공사에 쓰기도 하였다.<sup>23)24)</sup> 이런 다양한 방식의 공사는 선천세상의 원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천지인 삼계의 소통을 인간과 신명의 적극적인 공사 참여를 통해 다시 연결하는 회통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산은 호생과 구세제민의 덕으로써 민생을 살피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천기의 운행에 개입한다. 가뭄에 단비를 내

21) 같은 책, 권지 1장 7절, “... 신축년부터 내가 일체의 천지공사를 맡았으니 금년에는 농작물이 잘 되게 하리라고 이르시니라. 이해에 비가 적절히 내리고 햇별이 쪼이 더니 들판에서는 온통 풍년을 구가하니라.”

22) 김대현, 「헤겔의 노동(勞動, Arbeit) 개념을 통해 본 천지공사(天地公事) 연구」, 『대순사상논총』 32 (2019), pp.175-199.

23) 『전경』, 교운 1장 8절, “... 천지공사에 신명을 모으고 흠어지게 하는 일과 영을 듣는 일에 무리들을 참관케 하고 또 풍우를 짓게도 하시면서 그 참관한 공사의 조항을 일일이 묻고 그 본 바의 확실 여부를 시험하셨도다.”

24) 같은 책, 행록 4장 31절, “... 들으시고 「네가 비를 빌러 왔도다. 우사(雨師)를 너에게 불어 보내리니 곧 돌아가되 도중에서 비가 내려도 몸을 피하지 말라」고 이르시니라...”

리게 하고, 하늘을 향해 꾸짖어 농작물의 충해를 막는 등의 내용에서 기상을 돌림으로써 과거 천수답에 의존하여 호구(糊口)를 지탱해온 백성들의 절박한 마음을 어루만져 준 증산의 구세제민의 정신과 호생의 덕성을 엿볼 수 있다. 호생지덕은 동양사상에서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꼽혔는데, 공자(孔子)는 사계절의 생명의 순환을 뜻하는 ‘원형이정(元亨利貞)’에서 원을 가리켜 ‘선한 것의 으뜸’이라 하였다. 원의 속성은 봄으로서 만물을 기르고 소생케하는 호생지덕을 가장 크게 찬미한 것이다.<sup>25)</sup>

호생지덕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상호는 각각 『맹자(孟子)』, 『서경(書經)』 및 『중용(中庸)』을 인용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 ‘사단확충(四端擴充)’, 즉 다른 생명체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본성으로 돌아가 널리 사랑을 베풀어서 중생을 돕는다는 의미인 ‘박시제중(博施濟衆)’과 ‘만물은 서로 해치지 않으면서 공생한다는 ‘만물병육(萬物並育)’으로 풀이한다.<sup>26)</sup> 즉, 호생지덕은 자연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유지되고 균형을 이루어, 만물에 끊임없이 생명을 주고 기르는(生生, Endless Birth-Giving)<sup>27)</sup> 천지의 대덕(大德, great virtue)인 것이다. 훗날 조정산은 증산의 뜻을 이어받아 호생지덕으로써 구세제민의 진법을 세상에 펼치는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순진리가 추구하는 실천윤리라 할 수 있는 광구천하(廣救天下)·광제창생(廣濟蒼生)의 정신의 밑바탕에는 이와 같은 생명존중의 호생지덕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하겠다.

25) 이선경, 「도원 류승국의 정역(正易)과 한국사상사의 상호 매개적 인식」, 『한국철학논집』 50 (2016), p.223.

26) 이상호, 「『서경(書經)』의 호생지덕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112-1 (2017), pp.96-99 참조.

27) Kwong-loi Shun, “Zhu Xi on Gong 公 (Impartial) and Si 私 (Partial),” *Dao: A Journal of Comparative Philosophy*, V(1) (2005), pp.1-9.

## IV. 맺음말

물리적으로 기상 현상은 지상에서 약 50km 상층부에 해당하는 대류권과 성층권으로 구성된 대기권에서 발생한다. 넓디넓은 광막의 우주적 측면에서 보면, 지구라는 작은 행성을 감싸고 있는 얇은 기층에 불과한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기상 현상은 해변을 이루는 모래 한 알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현상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 현상을 통해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생육에 음양과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관여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는 인과 관계나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점증하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 속에 인류는 여섯 번째 대멸종<sup>28)</sup>에 직면해 있다. 2022년 IPCC<sup>29)</sup>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기후위기로 인해, 물부족, 식량위기, 질병의 발생,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안전망과 시스템의 붕괴, 기후난민 발생과 같이 인류문명이 처한 심각하고도 암울한 현실을 경고하였다. 인류사를 돌아보면, 선천문명은 정복적, 약탈적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을 ‘문명의 진보’ 내지는 ‘인류 공통의 번영’을 위한 필연적 행위로 미화하고 정당화해왔다. 소위 ‘백척간두’에 내몰리고 나서야 붓물처럼 쏟아지는 진단과 해결책들이 이미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은 듯해

28) 지구상에는 그동안 ‘절멸’이라고도 하는 대멸종이 다섯 번 있었으나, 지금 진행되는 6번째 대멸종은 이전과 달리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외,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MAB한국위원회, 2018), pp.21-26.

29)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과 유엔의 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가 기후관련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에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창설한 기구이다. 2022년 현재 195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세계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있다.

보이는 인류의 구원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대순진리에서는 만물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 선천의 상극으로 인해 도의 근원이 끊어졌으며, 이로 인해, 천지인 삼계의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영향을 받고 사는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법칙에서 유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동하며 영향을 교환하는 존재이다.

선천에서 인간의 통상적인 자연관은 환경(자연)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문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환경가능론에 가깝지만 대순진리는 선천의 제 문제의 원인이 된 ‘원’을 풀기 위해, 증산이 재구조화(공사)한 자연의 순환고리에 순응하며, 후천개벽, 즉 천지인의 대변화후 지상선경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 천지는 개발과 약탈적 이용의 대상이라는 정태적이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의 적극적 역할 속에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다. 하늘과 땅, 날씨의 수한과 한서, 바람의 순역사이에도 시비가 있어 역신을 모두 해원하여 성수로 보내 시비를 없앤다<sup>30)</sup>는 증산의 말에서 자연재해,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적인 해답이 인간이 천지에 누적해온 원의 해소에 있음을 보여준다.

차선근의 연구에서 보면, 대순진리의 자연관은 증산의 인존사상을 토대로, 인간의 위상이 다른 존재들보다 더 높기에 자연의 법칙안에서 더 능동적인 역할 수행과 참여를 요구한다.<sup>31)32)</sup> 말하자면, 증산의 해원공사에서는 인간과 신명이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인간은 빈번하게 기상 현상을 통해 공사의 시작, 과정 및 결과를 인지하게 된다. 증산은 천지운행의 주재자로서, 우주의 대변혁을 이끌 주체도 인

30) 『전경』, 교법 3장 6절, “...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

31) 차선근, 「대순진리회 생태론 연구서설: 상생생태론」, 『대순사상논총』 35 (2020), pp.295-330, p.320.

32) 『전경』, 교운 1장 30절, “... 천지는 일월이 없으면 빈껍데기요, 일월은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빈 그림자일 뿐...”

간이며, 천지공사를 위해 반드시 관여해야 하는 존재론적 가치를 지닌 것도 인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33)34)</sup> 다시 말해, 환경위기를 천지의 정화작용으로 치환하는 서구의 ‘가이아 이론(Gaia Theory)’<sup>35)</sup>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문제를 전적으로 인간의 탓으로 돌리는 IPCC의 보고서와는 달리 대순진리의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연대와 상호작용에서 근원적인 문제 해소책을 찾는다. 더 나아가, 눈앞에 닥친 전지구적 기후위기의 근원적 해결은 상생의 도로서, 천지인 삼계의 해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사를 통해 원과 상극이 가득 찬 세상에서 이제 대순진리회의 역할과 실천윤리의 지향점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는 너무나 자명하다.<sup>36)</sup>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개괄해보면, 우주의 운행에서 발현되는 대자연의 현상에서도 매우 지역적인 자연의 현상인 기상의 양태를 고찰하고 『전경』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어떠한 과정 및 맥락 속에서 나타났으며, 인간 활동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명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궁극적 구원을 지향하는 종교가 이에 깊은 관심을 두는 것은 인류가 처한 현실세계에 대한 이

---

33) 같은 책, 교법 3장 47절, “... 일이란 것은 마땅히 왕성히 천지에 있다. 반드시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는 인간을 낳아 쓴다. 인간으로 태어나 천지가 인간을 쓰는 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34) 같은 책, 교법 3장 35절,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니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다.”

35) 60년대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이 제안한 이론이다. 가이아 이론의 옹호자들은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구 온난화, 기후위기, 질병의 출현과 같은 환경문제나 문명의 붕괴도 지구 차원의 자정작용의 결과로 보기도 한다.

36) 2019년 10월, ‘지속가능한 생태 문명을 위한 종교 간 대화’라는 주제로 대순진리회와 여주시가 후원한 여주에코포럼은 종교의 이념을 뛰어넘어 전지구적 생태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사로서, 여주시의 친환경생태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종교간 환경운동 연대 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1회성 행사에 그쳤지만, 대순진리회의 상생이념과 실천윤리를 환경운동을 통해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순종교문화연구소는 2019년 중국 베이징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에서 증산의 해원상생의 생명철학을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해는 물론 종교계의 내적 성숙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필자의 일천한 과학 지식으로 인해 기상 현상의 물리적인 측면은 거의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기상 현상이라는 천지운행의 한 단면을 살펴봄으로써 피상적이거나 대순진리의 자연관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찾고 싶다.

## 【참고문헌】

-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노자, 『도덕경: 노자사상』, 서울: 알바투스, 2017.
- 박마리아,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신앙체계에 관한 비교」, 『신종교연구』 24, 2011.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외,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MAB한국위원회, 2018.
- 이경원, 「대순종지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6, 1998.
- 이상호, 「『서경(書經)』의 호생지덕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112-1, 2017.
- 차선근, 「대순진리회 생태론 연구서설: 상생생태론」, 『대순사상논총』 35, 2020.
- Chandima Gomes and Ashen Gomes, “Lightning; Gods and Sciences,”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ghtning Protection (ICLP),” Shanghai, China, 2014.
- David Hume,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https://socialsciences.mcmaster.ca/econ/ugcm/3ll3/hume/enquiry.pdf>, (2023. 4. 20. 접속)
- Fiona Bowie, “Miracle in Traditional Religions ‘Miracle in Traditional Religions’ in Graham Twelftree,”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Mirac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Kwong-loi Shun, “Zhu Xi on Gong 公 (Impartial) and Si 私 (Partial),” *Dao: A Journal of Comparative Philosophy*, V(1), 2005.
- LEONARD PITTS JR, 「Pitts: The church may be shrinking, but belief in God is not」, 『The Mercury News』, <https://www.mercurynews.com/2021/04/03/pitts-the-church-may-be-shrinking-but-belief-in-god-is-not>, (2022. 1. 10. 접속)
- 『CBS News』, 「Poll: Do You Believe In Miracles」, <https://www.cbsnews.com/news/poll-do-you-believe-in-miracles> (2023. 4. 25. 접속)

- 『The Los Angeles Times』, 「Most Believe in Miracles, Poll Finds」,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00-may-06-me-27250-story.html> (2023. 4. 25. 접속)
- 『대순진리회 여주도장 홈페이지』, 「전경」 <http://www.daesoon.org/about/bible.book.php> (2022. 2. 10. 접속)
- 『한국 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2) 종교에 대한 인식」,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9>  
(2021. 4. 7. 접속)
- 『대순문화종교연구』, 「신앙의 대상」, [http://gyomubu.or.kr/bbs/content.php?co\\_id=002\\_03](http://gyomubu.or.kr/bbs/content.php?co_id=002_03) (2022. 1. 18. 접속)
- 『국가기후위기정보포털』, 「기후위기 정의」, [https://kaccc.kei.re.kr/portal/climateChange/climatechange\\_list.do](https://kaccc.kei.re.kr/portal/climateChange/climatechange_list.do) (2022. 2. 19. 접속)



■ Abstract

**Jeungsan's View of Nature through the Meteorological Phenomena Described in *The Canonical Scripture***

**Kim Jin-young**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Culture & Content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discusses the use of meteorological phenomena in Daesoon Jinri, a religion that views such phenomena as a means of predicting changes in human society,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Like many other religions, the meteorological phenomena in Daesoon Jinri are believed to reveal Jeungsan's miraculous abilities, serving as an omen or mediator of the divine power. Additionally, during a time when farmers relied solely on rain-fed fields, Jeungsan was viewed as a savior of the world for his ability to turn meteorological disasters such as droughts or floods into life-saving rain and clear skies.

In his Reordering Works, there were dramatic changes observed in meteorological phenomena. These changes were believed to produce active energy or serve as a medium through the phenomena.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Jeungsan used meteorological phenomena to express his views on nature, and to find ways to address the increasing climate crisis and the role of religion. The meteorological phenomena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based on their contextual characteristics: authority and miracle, before and after the Holy Works, and the virtue of cherishing life.

Jeungsan's solution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c solidarity between humanity and nature, and their interaction. He also emphasizes resolving all the grievances of the Former Worl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ature. In other words,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injustice can only be eliminated through grievance resolution and the Dao in mutual beneficence.

**Keywords:** Jeungsan, meteorological phenomenon, Daesoon Jinrihoe, *The Canonical Scripture*, climate crisis, the view of nature